



로템나무그늘교회

2022년 교회 표어

[온전한 사랑으로 경계를 녹이는 교회 (요일 4:18)]

- 2022. 01. 30 주현절 넷째 주일
- 오전 11시
- 친구사이 사정전 / 온라인 ZOOM

온라인 예배자를 위한 안내

1. 출석 확인을 위해서,
ZOOM 이름을 교회 닉네임으로 바꿔주세요!
2. 신앙고백, 성서봉독과 공동축도 시간에는
마이크를 켜고 한 목소리로 천천히 낭독하시면 됩니다.

찬양을 부르는 시간에는
온/오프라인 사이에 딜레이가 있어서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3. 예배 후에 온라인에서도 나눔시간이 있으니
바로 나가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부름
(사회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앙고백
(다 같이)

[로템나무그늘교회 신앙고백문]

우리는 온 세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지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은혜로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한 매 순간 우리의 호흡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믿으며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믿습니다.

아멘

찬양
(다 같이)

저 장미꽃 위에

C. A. Miles

한국찬송가공회 역

1. 저 장미꽃 위에이 슬 - 아직 맺혀 있는 그 때 에
2. 그 청아한 주의 음 성 - 울던 새 도 잠잠케 한 다
3. 밤 깊도록 동산 안 에 - 주와 함 께 있으려 하 나

귀에 운 운히 소리 들 리니 주 음 성 분 명 하 - 다
내게 들 리던 주의 음 성 이 늘 귀 에 쟁 쟁 하 - 다
괴로 세 상에 할 일 많 아서 날 가 라 명 하 신 - 다

주가 나 와 동행 을 하 면서 나 를 친 구 삼 으셨 네 -

우리 서 로 받 은 그 기쁨 은 알 사 람 이 없 도 - 다 -

대표기도

- KEVIN 님 -

[누가복음 4장 16-30절]

16.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서

17.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18.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 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 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19.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20.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2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22.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하고 말하였다.

23.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하는 속담을 내가 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하고 말하려고 한다.”

24.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25.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삼 년 육 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26.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27.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28.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29.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30.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설교
(이동환 목사님)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헌금

헌금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로 닉네임과 헌금 종류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약정, 주정, 십일조, 선교, 건축, 사랑)

카카오뱅크 3333 21 9744006

축도

- 이동환 목사님 -

1. 정부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오프라인 예배는 최대 21명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밴드의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2. 2022년 헌금 계좌가
카카오뱅크 3333 21 9744006 (ㄱㅅ즈)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체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2022년 새롭게 약정헌금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밴드에 별도 공지에서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 예배 후에 촛불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자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
바로 나가지 마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4.

영어성경공부 모임이 매주 월요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운영위에게 연락주시면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5.

목요성경읽기 모임

QnA, 청어람과 함께하는 <귀어성서주석 함께 읽기 챌린지>
에 함께 하는 것으로 1~2월 진행합니다!

6.

성소수자를 위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판 1심에서 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님의 항소심이 25일 재개되었지만,
여러 불공정한 이유로 재판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동환 목사님의 재판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될 재심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송

[아름다운 퀴어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퀴어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미움 다툼 혐오 차별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